

수입개방과 국내 양돈산물의 유통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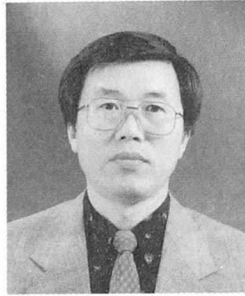
1997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를 포함한 여러가지 축산물의 수입이 추가로 자유화될 계획이다. 한쪽에서는 국내 양돈은 이제 끝장났다고 걱정하는 패배주의적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력하면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우리 자신이 자신있게 예측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내 양돈업이다.

이러한 두가지 견해는 모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두 틀리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입개방을 맞이하면 분명히 국내 양돈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므로 전자는 옳은 판단이지만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대응태세를 갖추면 후자의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며, 누구나 한번쯤은 고품질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도 비위생적인 도축과정을 개선하고, 지육냉장 및 냉장수송을 준수하고, 신선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돈육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홍보하려는 노력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개선하지 않아도 이제껏 큰 탈없이 사업이 잘되어 오는 기득권의 유지와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는 악습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선육은 부패되는 식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생산되면 더욱 쉽게 부패되어 판매나 소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돈육이 비위생적으로 생산되는 연유로 냉동육으로 유통되어지고 있고 그나마 업계 일부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냉장육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국내 양돈업계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품질개선은 돈육의 관능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위생적 품질도 강조하고 있으며 거국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품질 개선 노력을 선진국 특히 돈육 수출국들은 일찌기 시작하였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국내외산 돈육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



이 무 하 교수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돈육과 국내산은 가격경쟁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돈육을 소비자들이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돈육생산업체(양돈업체)가 가지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돈육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가 가격경쟁 이전의 생존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1996년 초에 조사된 보고서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특정 식료품점을 찾는 이유로서 1위는 청결도, 2위는 신선 과일/채소 및 신선육의 품질, 그리고 3위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식품 제공이라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1994년부터 신선도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점점 인기가 더해 가고 있으며, 이 경향이 모든 종류의 식품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신선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으로서 생산자의 브랜드(Brand)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외국과 우리가 똑같이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하에서는 국내산 돈육이 수입육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맛도 아니고, 안전성도 아니고, 위생적 수준도 아니고 신선도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돈육의 신선도는 아무리 저장기술이 발달하여도 방금 생산한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된 돈육은 신선도 면에서 국내산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같이 안전성도 떨어지고, 위생적 품질도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돈육의 신선도를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 돈육업체(양돈업체)의 고민일 것이다.

아무리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하여도 그 방울을 고양이 목에 걸어 놓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부디 위생적인 돈육의 생산과 유통을 통하여 성취된 신선도로써 승부를 거는 국내 돈육생산 업체(양돈업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